

남원 '오미자' 탈모 예방 화장품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주)에스비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내년 4월까지 14억여원 투입
헤어토닉·크림 등 제품 개발 추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가 남원 오미자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는 시험을 위해 오미자를 손질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지역 자생 '오미자'를 활용한 탈모·발모의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역 화장품기업(주)에스비씨(대표 안희영)와 함께 남원 오미자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13억 5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원 화장품 기업 에스비씨는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남원 오미자의 쉬잔드린 등 5종의 효능성분을 함유한 분석데이터를 활용해 초음파가공기술을 적용, 효능성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이렇듯 효능이 확보된 소재를 헤어토닉, 헤어크림, 헤어컨디셔너 등에 사용해 고기능성 제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2022년 오미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 유효 오미자가 탈모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업으로 오미자의 탈모

예방 효능을 검증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리산 천연물 자원의 소재원료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산업연구원은 2022년 오미자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유효 오미자가 탈모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남원 오미자의 탈모·발모 효능을 검증하고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산업연구원의 기초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화장품기업과 사업화를 위해 협력을 추진한 결

과이다. 특히 그간 축적해 온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원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분야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 및 연계한 식용 곤충 및 스마트 팜 단지와 연계한 디지털 정밀 재배로 연구 분야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이동 간소화

공음면 장동지구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위 심의 기간 단축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북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올해는 민원인의 건촉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지에 대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농식품 수출확대·저탄소 식생활 확산

시-aT, 업무협약...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유통구조 개선 등 협력



지난 21일 정읍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수출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수(왼쪽 세번째) 시장과 aT 김춘진(왼쪽 네번째)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수출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정읍시청에서는 이학수 시장과 aT 김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생산,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사용, 식품 폐기물 최소화 등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으로 지난 2021년 aT가 도입해 추진 중이다. 국내외 46개국 69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교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을 통한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실현 ▲농수산식품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소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T는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과 글로벌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고 시는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 생산과 지역 특산물 수출협약 등 해외시장 판로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시는 양 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그린황도 복숭아' 홍콩 입맛 저격

2.5kg 416상자 1t 수출길
8월까지 총 60여t 납품

남원에서 생산된 고품질 '그린황도 복숭아'가 홍콩 수출길을 열었다.

남원시는 '남원 그린황도 복숭아' 2.5kg 416상자 1t이 춘향골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을 거쳐 홍콩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선적식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수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

시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해 전북농협 본부장,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춘향골농협 및 남원원에 농협조합장, 남원복숭아공선연합회장, 한인홍 홍콩수출업체 대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함께했다.

시는 춘향골농협, 남원원에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복숭아 유통·판매망의 다양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내외 바이어와 수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수출 협상을 벌여 왔다.

협상 결과 오는 8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매주 4차례씩 총 60여t의 그린황도 복숭아를 홍콩에 수



지난 21일 남원 원예농협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그린황도 복숭아 홍콩 수출선적식'에서 참석자들이 수출 복숭아와 함께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출기로 했다. 남원에서는 올해 305농가 330ha에서 복숭아 3600여t을 생산했다.

춘향골농협과 남원원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최신식 복숭아 선별기를 도입하는 등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해 국내 대형유통매장인 이마트와 홈플러스에도 납품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농·축산물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복숭아 수출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파프리카, 배, 포도, 양파, 딸기 등 작목의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보행약자 배려" 상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정읍시, 설치 지원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관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휠체어, 유아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의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설치 희망 사업주는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설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